

# 민주노총-통합진보당 4.11총선 정책협약식

8 흥미리 기자 | ㉠ 승인 2012.03.06 11:18

## 당 “19대 국회 개원 직후 10대 우선입법과제 조속처리 위해 원내외 활동 최선”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민주노총 4.11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노동자들의 긴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법 입법, 파견법 폐지 등을 담은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양성윤 부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과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들, 비례출마자,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통합진보당은 핵심 노동·경제·사회 현안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10개 우선입법 과제는,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갈수록 심화되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로막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통합진보당은 전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노동·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의 ‘10대 요구 78대 과제’ 정책 취지에 동의하며, 19대 국회 개원 직후 10대 우선입법과제 조속한 처리를 위한 원내외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은 또 19대 총선 직후 우선입법과제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민주노총과의 성실한 협의절차에 착수하는 등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과의 상호 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2012년 총선을 통해 노동문제 획기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1-10-100 운동(“1번에 10개 핵심법안을 100일 안에 입법한다”)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관련 10개 우선입법안에 대한 각 정당별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6일) 통합진보당과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입법요구에 동의하는 여러 정당들과 지속적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해나가는 한편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민주노총-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협약서

1. 통합진보당은 핵심 노동-경제-사회 현안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한다.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10개 우선입법 과제는,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갈수록 심화되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로막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올바른 노동문제 해결 없이는 온전한 사회민주화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복지 확대도 노동인권 보장의 토대 위에 설 때만이 그 의미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복지 선진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아울러 10대 우선입법 과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등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 금지와 비정규직 확대,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 등,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다.

이에 우리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원내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1.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노동.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의 '10대 요구 78대 과제'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

민주노총의 '10대 요구 78대 과제'는 시급한 노동 과제뿐만 아니라 한미 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의료.교육.빈곤.노후.주거 등 복지 의제,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한국 사회를 '99%가 함께 사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역대 정권을 거치며 '친기업'으로 편향됐던 정부의 노동.사회.경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숙제이다.

이에 우리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거는 물론, 이후 펼쳐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의 10대 요구와 78대 과제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1.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직후 우선입법과제 추진기구 설치 및 민주노총과의 성실한 협의절차 착수 등 본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총과의 상호 협력을 높여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2012년 3월 6일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